

# “허공에 노니는 학이 되리라”

“학춤을 출 때는 학이 되고 지성승무를 출 때에는 선사가 되려고 하지, 그것이 나의 춤이야.”

학이 되고자 하는 춤꾼 김덕명(金德明)옹. 김옹은 일흔하나의 성상을 춤추는 마당에서 살았다. 그래서 김옹은 춤추는 일외에는 다른 일을 할 줄 모른다. “춤꾼이 춤만 추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해서 뭐하겠소. 평생을 춤판에서 살았어도 아직 나는 완전한 춤꾼이 되지 못했으니 남은 시간도 춤을 추어야 할 것이고... 전생에 못마친 일을 지금 하는지도 몰라.”

### 절에서 춤사위 배워

김옹은 어쩌면 전생에도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막연한 전생에 대한 믿음은 이제 내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옹은 언젠가 멋드러진 춤판에서 학춤을 추다가 한마리 학이 되어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

“내가 전생에 춤꾼이 아니었다면 이

미 춤에 몰입된 한 경지의 관자로 빛난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학춤을 ‘학을 사냥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춤꾼이 바로 학이 되어 노닐고 있다’고 말한다.

영축산 푸른 소나무에서 날아든 한마리의 학. 그 학의 날개와 몸과 다리가 내보이는 갖가지 동작은 아름다움의 관념조차 넘어서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김옹이 펼치는 무대에서 항상 듣는 말이다.

“나는 춤을 출때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 그저 학이 되어 너울거리는 것 뿐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춤이 될 뿐이야. 진정한 학춤은 내가 한마리 학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극히 철저한 수행이야. 수행의 마당에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아름다운 동작으로 연결시켜 내는 것이지.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되는 일이지.”

자신을 잊어버린 곳에서 추는 춤. 그러나 학의 ‘탈’을 쓰고 있어 학이 되어야 하는 춤. 끝내는 자신도 학도 다 잊



## 신문박의 示準

한량무 예능보유자 김 덕 명 옹

# 춤판은 수행마당 “생각마저 버려야지” 평생 화두 ‘지성승무’ ‘연등바라춤’ 등 기교 넘은 달인 경지

승에 와서 어떻게 평생 춤을 출 수 있었겠는가. 여덟의 어린 나이에 범어사로 들어 갔다가 다시 통도사로 옮겨 스님들에게 절집안의 춤사위를 이어 받았는데 그것은 다 전생과 이승의 공을 수 없는 인연 풀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내 다시 태어날 곳도 춤판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일흔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뚜렷한 말소리와 깨끗한 몸매무늬에서도 타고난 춤꾼의 ‘기’가 보이지만 이미 자신과 춤의 어쩔 수 없는 인연까지 믿고 있는 김옹에게서는 ‘운명’이나 ‘숙제인연’이나 하는 수식어도 필요가 없다. 그토록 김옹은 자신의 일을 철저히 ‘자기화’시키고 있다.

전생과 이승, 그리고 저승의 길을 잇는 춤꾼의 마음은 언제나 고고하고 유려한 몸짓의 학으로 표현된다. 큰 것을 쓰고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학의 몸짓을 연출해 내는 김옹의 눈빛은 이

어버린 순간에 얻는 깨달음의 기쁨까지를 넘보는 춤꾼의 집요한 기질이 일흔의 노구를 감싸고 있다.

김옹은 학춤 외에도 ‘지성승무’ ‘연등바라춤’ ‘연등바라춤’ ‘교방살풀이춤’ ‘고전추출춤’ ‘한량무’ 등에도 달인의 경지를 갖추고 있다. 물론 지금도 하루 서너시간씩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춤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다. 춤꾼으로서의 자신을 한 순간도 놓지 않기 위해서다. 춤을 추는 것은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굳은 믿음을 또한 김옹을 지탱해 주는 화두이다.

“춤판에서는 틀려 선 관객들을 생각해서도 안되고 무슨 기술로 그들을 사로잡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야. 오직 내가 춤을 추다가 그 춤이 되는 것에 몰두 해야지. 그리고 끝내는 내 춤을 보는 사람들이 춤이 되게 해야 하거든. 그것은 역시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운 곳에서 비

롯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아직 한번도 나와 관객과 춤을 하나로 묶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또 다음의 춤판을 기다려.”

### 춤·춤꾼·관객은 하나

또 다음의 춤판을 기다리는 김옹은 고독하다. 고독한 연습과 고독한 준비로 다음 춤판의 성공을 기대하는 철stone의 춤꾼. 그것은 어쩌면 춤보다 아름다운 춤이전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독을 안으로 삼켜며 춤사위를 익혀 온 김옹에게 그의 춤판은 언제나 유연한 학의 놀이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그리는 스님들이 학을 많이 그리는데 그것은 학이아름 선(禪)의 집중이기 때문이지. 그 긴 다리와 단아한 몸체, 그리고 고고한 자태가 깊은 산의 수행승을 연상시키거든. 내 학춤도 그것과 같은 것이야. 수행자가 목격하는

깨달음의 세계, 그 기쁨의 세계로 너울너울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학을 생각해 보. 그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나는 이승의 춤판을 그대로 가져가 저승에서도 춤을 또 추고 싶은 거야.”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지 모르다며 스스로의 심정을 털어놓는 김옹은 사뭇 진지하다. 이승 인연의 글을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읽다는 느낌을 주는 김옹. 영축산의 푸른 소나무 위에 앉아 하늘을 우러르는 한마리 학이 분명한 김옹은 말로만 ‘옛것을 배우자’고 떠드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진다.

“옛것, 우리것을 배우는 기교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속의 마음을 배우야 하는 것이야. 춤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지 못하면 이미 춤은 몸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박경근 기자



삽화·이기선

## 편견 낳은 ‘자연꽃’ 시비

중고등학교 시절이다. 부산 대각사의 부산불교학생회에 다닐때 부처님께 바쳐 올리는 노래가 있었다. 꽃공양 노래가 바로 그것이다.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된 문틈에 정성을 쏟아서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순간은 가슴속에서 상쾌한 향기가 치솟기도 하였다. 노래말은 아마 이렇 것이다.

화려한 강산에 피어 꾸며진 아름다운 꽃들 꺾어 모아서 단장한 공양꽃다발 부처님은 성안에 웃음 지으시네

어린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정성껏 꽃다발을 올리면서 이 노래를 경건하게 불렀다. 어린 마음이 청초하게 되는 순간들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참 좋은 세월이었고 지금껏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종교 체험이 추억이 되면 안되지만 그래도 순수의 고함에서, 청정한 도량에서 예경하던 시절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때 우리들은 가난하였다. 꽃가게에서 꽃을 사서 올리던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산이나 들에 핀 들꽃들을 갖고 꽃다발을 만들었다. 들꽃이라 여려가지고 그때라 갖가지 꽃들로 꾸며 올렸다. 그래도 부처님께 기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었다. 아마 가장 하게 받아주시는 것이리라.

### 금기의 꽃 취급 ‘어불성설’

여전히 절 법당 탁자에는 수많은 꽃들이 올려지고 있다. 한국꽃 서양꽃 가리지 않고 공양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백합꽃도 올린다. 장미도 수선화도, 물망초 안개꽃도 올린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으로 내려보시며 웃으신다. 부처님의 눈에는 무엇이던지 차례로움으로 비취시게 되는 위대한 공경이 있으신가 보다.

꽃 불교에서 상징되는 꽃만 올리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초목중생을 남김없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일체 초목에도 불성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자비로 섭수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35

연꽃(蓮華)

### 초월한 청정성 상징

그런데 한국사람으로 연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연꽃은 불교의 꽃이나 우리에게는 무관하고 아니 금기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우스운 일이다. 지구 도처에는 자연의 꽃이 피고지고 한다.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이 싫어하고 금기하고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싹이 돋고 움이 나서 꽃이 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핀 야생화들은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재가 할 수 있는 생명력에 의하여 피고지고 하는 윤회를 거듭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들에 시비나 증오 금기하는 독단적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간간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알만한 연꽃이나 정원의 연꽃들이 수년을 당한다고 하니 인간과 자연을 이간시키는 행

업이 아닌가. 연꽃은 자연의 것이다. 어느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교리와 맞추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꽃이 상징되었을 뿐이다. 연꽃은 연꽃일뿐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못 교리와 상응한다면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진흙에서 청초하게 피어

연꽃의 성질은 진흙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청초하고 맑게 피어 오른다. 연꽃에는 어떠한 물기가 묻지 않는다. 이러한 연꽃의 성질을 심분 활용하여 사바교해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열심히 닦으면 사바에서 청정성을 갖추는 계층이 된다던가, 깨침의 성품에는 어떠한 번뇌도 탐욕도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교의 꽃으로 삼아서 많은 설법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연꽃은 아열대지역의 수련, 눈, 호수에서 자생하는 꽃이다. 청련, 홍련, 백련 더우기 우담바라는 삼천년 만에 피는 연꽃이라 하여 일대사 인연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연꽃처럼 고귀하고 청초한 꽃이 있으라.

그런데 이 연꽃이 수년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법당 탁자에 올려진 백합을 보고 갈수록 본 적이 없다. 이 백합은 다른 종류의 상징꽃인데도 불구하고 백합의 순수함을 상찬할 뿐이다.

꽃을 갖고 시비하는 마음에 편견과 독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마음의 행방을 다스려야 한다. 자연에 피는 꽃 모두를 부처님께 예배공양용으로 올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

## 죽장사(법륜사)생전 예수재

죽장사터에는 국보 130호로서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5층 불감식탑만 있을 뿐 도량은 풍우에 씻겨 큰 토랑이 되었으며 사찰의 모양새는 전혀 없던 곳에서 기도해 들어간 지 이제 5년! 법당 25평 요사 53평 산신각 8평을 지어 온 8월 6일을 기해 생전 예수재(49일기도)를 올립니다. 불은에 감사하고 인연 맺은 모든 단원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불국경토에 태어나 다시는 육도윤회 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예수재 불사에 동참을 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기 2539년 6월

죽장사 주지: 명효  
총무: 견진  
신도회장: 김학승(大慧) 합장  
전화: 0546-481-2736, 481-7550

- 입재: 8월 13일(음 7월 17일) 오전 11시
- 초재: 8월 20일(음 7월 24일) 2재: 8월 27일(음 8월 2일)
- 3재: 9월 3일(음 8월 9일) 4재: 9월 10일(음 8월 16일)
- 5재: 9월 17일(음 8월 23일) 6재: 9월 24일(음 8월 30일)
- 회향: 10월 1일(음 8월 7일) 새벽 4시  
(9월 30일 밤 10시 ~ 4시까지 예수재 및 고혼 친도재 봉행을 위하여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출발합니다.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예수재 30,000원 위패 1위당 10,000원

- 서울지역: 전여의 정기버스 운행  
\*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6시 조계사 앞 출발 당일 오후 7시 서울 도착  
\* 9월 30일 오후 조계사 앞 출발 다음날 오후 6시 조계사 앞 도착
- 교통비: 20,000원(왕복)
- 예약전화: 02-732-0181-3 수미산여행사(전여의)
- 대구지역: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매 일요일 오전 9시 출발 대구도착 오후 4시
- 예약전화: 053-654-5600, 리라유치원 053-652-7171

이 밖에 고속버스타 일반 직행버스로 선산에 도착하시면 8월 20일 일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예수재 끝나는 날) 선산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죽장사행 무료 셔틀버스가 매 정시마다 대기하오니 서울과 대구에서 죽장사행 버스를 이용 못 하실 때는 일반버스로 오셔도 됩니다.

##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WOO

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청우 유자야
-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 1976 파리 니델레산 공모전 입상
-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 1979 파리 프라마그 로지예 공모전 입상
-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 1980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박화정 회랑)
-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형원빌딩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